

## 이부스키의 소금 생산 역사

소금 개별포장이 흔하고 저염 감자칩이 나오는 시대이다 보니 소금이 필수 영양소이자 전 세계 식문화의 기본 재료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그랬듯 일본에서 소금은 막대한 경제, 문화 및 역사적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일본에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소금을 공급하는 천연 암염이나 염지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약 3,000년 동안 소금을 생산해 왔습니다. 가장 초기의 생산 방식은 단순한 원뿔형 토기 그릇에 해수와 해조류에서 채취한 소금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을 끓여 증발시키면 소금이 그릇 안쪽에 붙었고, 이렇게 남은 소금은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가고시마의 여러 유적지에서 해당 그릇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된 소금 채취 기술이 개발되어 훨씬 더 큰 규모로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부스키에는 에도 시대(1603~1867) 또는 그 이후까지 소금 산업이 있었던 마을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수를 양동이에 담아 모래가 깔린 땅에 붓는 염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햇빛에 해수가 증발하면 고농도의 염수가 되었고 이는 거대한 갈퀴로 긁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염수를 철제 가마솥에 넣고 끓여 남은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산업 소금 생산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 소금은 경제 및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내 소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추가 염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염전은 만조 시 자연스럽게 해수가 유입되어 해수 공급이 보충되는 대형 염전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83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 소금의 가치가 아주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쟁 물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고, 민간 소금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영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소금 생산 방식 개발을 장려했습니다.

온천이 풍부하여 열원이 충분한 이부스키에서는 구로자와 에이지라는 연구자가 소금 생산에 지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그는 믿을 만한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 동안 소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1942년 전매제를 해제했습니다. 소규모 생산이 다시

허용되었고 온천 활용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야마가와의 후시메 해변 근처에 세워진 작은 공장은 1964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염전은 이 독창적인 소금 제조법의 증거로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경 산업화는 소금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공기압과 끓는점의 관계를 활용하여 저압 진공 탱크에서 염수를 증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산업 방식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1959년에는 이 진공법을 기반으로 한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소금 생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국적인 생산 과잉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시 소금 전매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소규모 소금 생산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이부스키의 소금 공장도 1964년에 폐업했습니다. 정부의 소금 전매제는 1997년까지 유지되었지만, 이부스키의 소금 생산자들은 풍요로운 바다로부터 생명의 원천인 소금을 다시 채취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